



interview

## “소비자 인식전환으로 육우 소비확대에 주력할 것”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

“육우의무자조금 시행 첫 해에 농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조금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거출률이 95%를 넘어섰습니다. 육우산업 회생을 위한 농가분들의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육우의 장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우산업은 낙농산업이 존재하는 한 필수불가결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타축종 대비 정부나 농·축협 등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적고, 육우품질도 수입산 쇠고기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의자조금 10년의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의무자조금으로 출발한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현주 위원장을 만나 올해 사업 성과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Q. 의무자조금 첫 해, 자조금 거출률과 사업진행 상황은?

위원장으로서는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임의자조금 당시 농가들이 자조금에 참여하지 않아 농가 거출금이 1~1억5,000만 원 정도였는데 의무자조금에서는 모든 농가들이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농가 거출금이 6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임의자조금보다 많게는 다섯 배 이상을 더 거출해야하는데 사무실 하나에 직원 한 명 뿐인 상황에서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한다고 해도 거출률이 낮으면 임의자조금 때와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거출을 시작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거출률 95%를 달성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자조금 중 가장 거출률이 높은 우유자조금(99%) 다음으로 높은 수치

로, 농가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히 납부해 주신 농가 거출금 5억 원(3월부터 거출)과 정보 보조금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PPL), 온라인·오프라인홍보, 육우데이, 육우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소비홍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불어 올해 육우 가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어 출발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사실 지난 2010년 대비 2013년 육우도축수가 4년 사이 30%가량 줄었고 사육두수 역시 5만 두 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농가들을 만나고 의기를 투합해 사업을 추진하려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산업전반이 어렵다보니 뜻을 같이하던 농가들이 다른 축





육우의무자조금 경상북도추진위원회  
결성식에 참석한 최현주 위원장



2014년 육우지도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현주 위원장

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조금은 육우농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농가들을 설득했고, 협회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작게나마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우자조금사업은?**

육우 소비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육우의 올바른 대중 인식확립을 위해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소, 우리육우’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육우 알리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소

비홍보사업의 비중을 높여 전체 예산의 60~70%를 투입했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예능교양프로그램 등 TV 방송에 육우고기의 우수성과 장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육우고기를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 [www.yookwoo.co.kr](http://www.yookwoo.co.kr)(5개업체 참여)을 오픈했습니다.

대량 수요처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육우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단체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및 기업 등의 단체급식 메뉴를 결정하는 영양사들에게 육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영양사 대상 육우시식회를 오는 11월 1일경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마트인 농협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에 육우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으로는 ‘육우고기 단체급식 실태조사 연구’, ‘육우고기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우고기 단체급식 실태조사 연구’는 육우고기 단체급식 실태를 조사해 육우고기의 단체급식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육우고기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는 현재 한우에 유리하게 돼 있는 축산물등급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우 및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이루고 저지방육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고기를 생산해 육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Q.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해오셨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움 점이 있다면?

지난해 한우산업은 355억여 원의 자조금으로 한우가격 하락을 막았고 한돈자조금은 187억 원으로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비록 타축종에 비해 예산 규모는 가장 적어도,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육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육우의 장점을 알리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현주 위원장은  
‘2014 육우고기가 좋다! 레시피 공모 및 요리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장과 심사기준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2014 육우고기가 좋다 레시피 공모 및 요리경연대회 후 기념촬영

그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형마트 입점입니다. 이를 통해 소매점 판매가 늘어나야 소비자들이 손쉽게 육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마트의 입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빠른시일 내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육우농가와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육우시세가 송아지 입식비용과 사료값, 건조값, 톱밥가격 등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육우산업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자조금사업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농가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농가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열심히 노력해 육우산업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현주 위원장

